

名前:

예전부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잡지
나 신문을 자주 보았다. 하지만 최근
인터넷이되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읽
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다. 하지
만 "필요 없다"라고는 할 수 없다. 전차
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할 수
없다. 딱히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뉴스를
보는 사람도 있겠지만, 늘 시간이 없어
도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.
그러한 이유로 신문이나 잡지같은 간
단히 휴대할 수 있거나 간단히 살 수
있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.
나도 자주 인터넷상으로 친구와 놀거
나 대화하거나 하지만 뉴스는 보려고
하지 않는다. 그냥 편만히 앉아서 명화
나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좋은데,
자세하게 화면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.
그 대신 이동 중에 신문을 본다. 물론
시간이 부족해서 전부 보지 못하는 경
우도 있지만, 통학은 왕복이라서 돌아갈

때 마저 보면 된다.
→ 성실해서가 아니다. 나 역시 자주
게으름을 피운다. 또 자주 멍해 있으며
시간도 잘 죽인다.
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
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일지도 모르지만
나의 경우는 "신문이 절대로 필요하다
" 쪽이다.
특히 인터넷에서는 사람을 끌기 위해
우수한 기사도 많이 있다. 때때로 반
에가 보면,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잘 들리
운다. 난 그 바보같이 웃는 것이 싫다.
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인터넷 뉴스,
눈에도 안 좋고, 몸에도 안 좋다. 나 같은
사람이 많으면 신문은 반드시 필요한
물건일 것이다.

1800字